

특특뉴스

신보, 창업경진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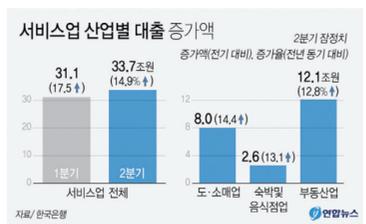
신용보증기금은 한국판 뉴딜 기반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2021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한국판 뉴딜 관련 대표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마감 이후 1·2차 서류심사를 통해 6개 수상 팀을 선정하고, 10월 중 발표평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6개 수상 팀에는 총 2,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별도 심사를 통해 신보의 보증,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스타트업 네트' 신청 시 서류심사 면제, 신보의 민간투자자유통 플랫폼 '유커넥트' 데모데이 참가, 창업드림센터 입주 추천 등의 비금융 혜택도 지원한다.

그래픽 경제



2분기 부동산업 매출 '역대 최대폭'

올해 2분기(4-6월) 부동산업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대출도 한 분기에 34조원 가량 더 늘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6월 말) 기준 모든 산업의 대출금은 1,478조5,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42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1분기(42조1,000억원)와 비교해 6,000억원 커졌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대출금이 3개월 사이 33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속도가 1분기(31조1,000억원)보다 더 빨라졌다.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용 '34만3,200원'

농진청 '2021 추석 농식품 구매변화' 발표

소비자 62%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선물금액 18만2,783원 전년비 3%↓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품을 농식품으로 구매할 때 지출되는 예상 비용은 34만3,200원대로 지난해보다 3% 감소할 수 있다.

농진청은 지난달 20~23일 소비자 8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소비자 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1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변화'를 8일 발표했다.

올해 추석 농식품 구매 예상 비용은 34만3,2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약 3%, 2019년보다는 5% 감소한 수치다.

농진청은 "최근 3년간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 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친인척 방문과 가족 모임이 줄고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명절 선물 예상 금액은 18만2,783원으로 지난해보다 3%, 2019년보다 4% 감소했다. 농식품 구매량을 줄인다는

응답이 20.6%로 가장 많았으며 단가를 낮춰서 선물을 산다는 응답이 9.1%였다. 응답자의 13.5%는 양도 줄이고 단가도 낮춰 산다고 답했다.

선물 종류를 보면 가족에게는 과일(24.2%) 선물이 가장 많았으며 현금·상품권(18.2%), 건강기능식품(9.6%)이 뒤따랐다. 지인과 거래처에는 과일(23.1%), 건강기능식품(6.7%), 현금·상품권(6.7%) 순이었다. 선물 개당 금액은 3~4만 원이 49%를 차지했다. 이어 5~6만 원(29%), 1~2만 원(15%)이 뒤를 이었다.

추석 음식이나 제수용 농식품 구매액은 지난해보다 3%, 2019년보다 5% 적은 16만451원으로 예상됐다.

가정 소비용 구매금액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45.7%는 가족 수가 줄어서, 32.4%는 가격이 올라서라고 응답했다.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도 전통적 제수용품보다는 가족이 즐겨 먹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품목 위주로 구매하는 등 구매 경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8일 추석을 맞아 우리 농산물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제공

추석 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농식품 소비 진척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응답자의 62%가 추석용 농식품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10~20만 원을

더 지출하겠다는 소비자도 44.4%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특수가 위축되면서 과일류, 특산물, 축산물 소비는 줄어든 대신 서류, 건·견과류, 가공식품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식품 부분의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 구매를 유도하고, 조리 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이동차량 현장 배치·운영
퇴직공제금 내역서 발급 등

충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6~7시)과 점심시간(11~13시)에 종합지원 이동차량(35인승 버스)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운영한다.

종합지원 이동차량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과 공제회 주요 사업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

한다.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도 함께 참여했다. 하나는 행은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기관이며, 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는 건설근로자의 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각종 상담지원을 실시한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는 관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0일까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장을 찾아가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과 함께 현장에

전자카드'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미애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객실

메식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